

제41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7월 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간사 선임의 건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 화성 공장 화재 관련 현안 질의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1
o 간사(조은희) 인사	12
2.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12
3. 화성 공장 화재 관련 현안 질의	15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국민의힘 간사님을 선임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세 분의 희생자와 어제저녁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돌아가신 아홉 분의 시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대형사고로 우리 국민 열네 분과 외국인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애통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원 후 한 달 만에 법안 상정과 현안질의 관련 기관장인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께 지난 6월 19일 있었던 업무보고 불출석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기관에 대한 행정부가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로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법률상의 협점에 기댄 국회 무시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항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제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함께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행안부장관께, 헌법과 국회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불출석하셨던 것이 중인으로서 채택했을 때와 같은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과 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앞으로는 더 엄중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과 소방청장,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기관장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국회 출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보듬는 국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모이신 첫 회의인 만큼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시갑 초선 김성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모경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에서 왔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 양부남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에서 온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 또 소방청장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만만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늦은 감은 있지만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반갑습니다. 영등포갑 채현일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한병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전북 익산을 한병도 위원입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국민의, 특히 최근 들어서 재난·재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뜻 모아서 국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함께 힘 모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어서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이름대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의정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상욱 위원님.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안녕하세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김종양입니다.

우리 행안위가 상임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행안위는 폭언, 협박, 고함과는 거리가 면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모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지방시대 우리 행안위에서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 이성권 위원입니다.

제가 17대 초선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17대와 22대의 정치문화가 너무 바뀌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국회가 아니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부산 기장군의 정동만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달 화성 화재로 인해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 잘 보살피고 법률 지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해양수도 부산, 해양 중심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춘생입니다.

행안위에서만큼은 민의를 잘 만들고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에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서, 어느 행사에서 만났는데 ‘행안위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재난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행안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꼭 있다고 생각해서 행안위에 지원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안위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일하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운영을 도와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을 소개드린 이후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문근 전문위원입니다.

이옥순 전문위원입니다.

위원회 입법조사관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지난 19일 행안위 첫 회의에서는 제 앞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되게 혀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꽉 채워서 좋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계시니까 정말 든든하고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토론과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우리 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안 오신 게 아니고 정부 관계자들이 안 왔어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이분들에게 책임과 질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굉장히 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62조 2항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는 출석과 답변을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회법상 절차를 저희가 다 지켜서 추진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께서 ‘누구보다 국회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전차 회의에 불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12일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의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하고 우리 19일 상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서 아까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그간의 국회 관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관례도 아니고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협의나 합의도 하나의 관례이지만 관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과 또 국회법에 따른 그런 정부기관 그리고 행정부의 자세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장관의 유감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위와 그런 모든 의사진행에서 최대한 존중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과 박정현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제가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약속드린 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과는 안 하시네요.

○양부남 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조은희 위원 여야 똑같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야당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교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먼저 들은 것 때문에……

○양부남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저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김종양 위원 창원 의창구 김종양 위원입니다.

지금 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국회법을 말씀하셨는데 법 이전에 지금까지 관례가 서로 협의·합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다수당의 어떤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대한 노력을 민주당에서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장관의 사과 표명 전에 다수당의 그간의 횡포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시고 사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는데 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태

원참사의 발생 원인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 내지 유도됐다는 이게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유도됐을 경우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면 본인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사임을 하지 않은 것인지 한번,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그것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종양 위원님이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가 원 구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무위원과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운영위원회의 앞으로 관례라든가 그런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은 그 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아까도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당의 특별위원회 행사에는 참석하고 야당의 공식적이고 또 합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불참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그건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가 선별적으로 야당이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에는 출석하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당이 주재한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재난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재난본부장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21대에서도 여야의 합의에 의한 위원회만 제가 출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그러한 관행은 법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 말씀이 지속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면, 하는 정도로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회법과 헌법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회의 진행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절차, 관례 이 부분을 장관이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관이 그걸 이 법률에 우선해서 주장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국회가 국민의 합의기관인 만큼 여야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합의 중요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나 장관에게, 국무위원에게 헌법에 규정된, 국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의 의무가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이야기나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위원장 신정훈** 부정하지 않으면 장관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지켜야 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먼저 들겠습니다. 잠깐 듣고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님이 발언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제 일정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일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일정에 따라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앞으로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의사일정은 존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답변 듣고 제가 드리겠다니까요.

○**조은희 위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아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넘어가려고 해도 영……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드릴게요, 이제 드릴게요. 이 답변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건영 위원** 법보다 합의가 우선이라는 게 말이 돼요?

○**위원장 신정훈** 법이 우선해야 된다는 위원장의 사회, 지휘권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우선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이지요, 이상민 장관이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그게 유감 표명이 아니라는 것을 못 알아듣는 위원님은 없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처한 위치라든지 여야의 합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라는 게 여야의 합의 정신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우리 여야가 합의를 안 해도 그냥 독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인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야가 처음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인 채택을 안 하고 이제 유감 표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정리하신 대로 유감 표명을 듣고 우리가 좋은 낮으로 인사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고, 화성 공장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밖에 회의를 못 하지요. 이 피 같은 시간에 우리가 피해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본회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 가지고 날 새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저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신정훈 우선 정춘생 위원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금 다수당의 횡포라고 해서 소수당 조국혁신당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행안부장관님은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 일정, 의사 작성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가 하나도 안 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위원은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진행을 하자는데 그걸 왜 못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간의 협의와 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여야 간의 합의와 또 협의 과정과는 별도로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감 표명이 지금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장관에게 다시 제가 물었는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여야 간의 합의가 된 국회를 존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어도 소위 말해서 국회법이라든가 헌법에 보장된 정부위원으로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피하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께서 간단히 자기 유감 표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이미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드린 말씀을 유감이 아니라고 해석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또 박정현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유사한 취지지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회의 진행합시다.

○**윤건영 위원** 회의 진행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관님.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장관이 저 자세면 진행이 됩니까? 배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동의하는데 저게 무슨 유감이에요, 저게?

○**위성곤 위원** 국회법에 의사일정 관련되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이. 그게 법이고요.

그런데 행안부장관께서는 그 법률을 위반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세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은 성실하게 답변할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성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시라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리고 유감이라는 두 글자를 꼭 써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감 의미를 훨씬 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출석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출석을 하는데 여야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합의가 안 되면 장관이 출석 안 할 거예요, 장관?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 부탁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자꾸 듣자 듣자 하니까 장관 너무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은희 위원** 윤건영 간사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서 합법적으로 원 구성에 대해서 의장을 선출하고 또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행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회의가 소집됐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당 입장과 또 여야 간의 협의 과정에 대한 고려의, 참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원칙은 장관이 존중해야 될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상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으로서 장관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건영 간사님 말씀대로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도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장관으로서나 정부위원으로서는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위원장은 충분히 노력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기본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이 국회를 보게 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기 원칙을 위배하는 거고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될 임무를 위배하는 거라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행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원 구성 과정에서 그런 여야 간의 협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무위원은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지속적으로 그런 협의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그래서 말씀을……

○**위원장 신정훈**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과 헌법에 부여된, 규정된 그 규정을 존중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임하겠다 이 정도면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취지로는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 취지가 아니라 입으로 이야기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헌법과 국회법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동안에 국회 내에서는……

○**이광희 위원** ‘다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여야의 합의 관례가 중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광희 위원** 장관님, 지금 말장난하시는……

○**위원장 신정훈** 제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늘 국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시를 다투는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회에 교섭단체별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사는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윤건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은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조은희) 인사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조은희 위원님 간사 선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간사라는 역할이 모든 게 협의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와 도움이 간절하다 싶습니다. 특히 협의 정신이 서로 대화와 또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오늘 위원회를 보면서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윤건영 간사님, 두 분의 경륜에서 많이 배우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기가 개시된 지 한 달 만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행안위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제대로 잘한다는 평가를 듣도록 귀를 열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윤건영 간사님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7)

(10시38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더 자세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전 국민에게 생계안정·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논점으로는 최근 경제 동향, 기존 현금성 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최근 재정 여건 등이 있겠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GDP 성장률은 20년 -0.7%, 21년 4.6, 22년 2.7, 23년 1.4, 24년 1분기 3.3%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GDP의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증가율은 20년 및 21년에는 GDP 성장률을 하회하다 22년 및 23년에는 성장률을 상회하였으나 24

년 1분기에는 다시 성장률을 하회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율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국고채 3년물 시장금리 등이 22년 하반기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초까지 4~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3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24년 5월에는 2.7%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의 경우 KDI 연구에 따르면 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수령한 가구에 26.2~36.1%의 소비 증가 효과를, 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9.2~36.8%의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최근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9년 이후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19년 37.6%에서 24년 51.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요국 대비 견전하다는 평가와 향후 증가 소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평가 등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제정안에 대하여는 처분적 법률 여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란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규율하는 통상적인 법률과 달리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다른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 해당 법률 또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위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제정안이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제정안의 취지가 제정안 의결 후 예산현액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형식으로는 국가재정법상 법정지출이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이 의결되어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가 부과된다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급대상·지급액·지급수단·사용기간 등 제도 세부사항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의 경우 기존 행정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하여 전 국민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년·21년 지원금 지급 사례 및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고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 외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등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액의 경우 제정안이 원칙적 지급액으로 설정한 1인당 25만 원은 21년 지원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최근의 경제·재정환경은 21년 지원금이 지급·사용되었던 기간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두 시기의 경제지표 및 재정여건 등을 비교하여 적정한 지급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경제·재정환경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25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지급의 구체적인 대상 및 금액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급수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성 지급수단에 비해 소비촉진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에 반대하는 논리로는 제도관리 등을 위한 행정비용 및 불법 환전 등으로 소비촉진 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찬성하는 논리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며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지역 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8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촉진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비율을 상향하거나 환급이 불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용기간의 경우 제정안은 20년·21년 지원금 지급 사례를 참고하여 4개월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길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고 지역별로 경제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간을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정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진행할 순서이나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이 법률안에 대한 후속 의사진행은 추후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으로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 통해서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22년 5월 25일에 계약 진행한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 계약 관련 자료 아시지요? 그것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심지어는 와서 보고라도 하라니까 보고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쫓아가겠다, 일정 잡겠다고 하는데도 자료를 안 주세요. 왜 그러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자료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광희 위원 나라장터에 행안부가 발주한 대통령 관저 관련 계약 현황을 보니까 14

억 3670만 원의 수의계약 아주 신속하게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주식회사 21그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했는데 이게 무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게 아니라 그 계약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에……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21그램이라는 그 업체가 알려질 경우에 그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그 계약 내용과 계약 상대방 등이 알려질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에, 주식회사 21그램이 실내 인테리어 전문업체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하려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주시는 거지요? 이러면 해당 업체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포스터에 후원업체라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최근 법원에서 수의계약 전부에 대해서 계약일자, 계약명, 품목, 업체, 금액 등으로 인해 대통령 경호 등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당당히, 요구자료는 수의계약사유서, 경위서, 계약서……

이게 왜 안 나오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요구자료는 수의계약사유서, 경위서, 계약서, 준공내역서, 시공업체 적격심사서류 등을 요청을 합니다.

바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께서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불가한 이유는 불가한 사유를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성 공장 화재 관련 현안 질의

(10시48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3항 화성 공장 화재 관련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의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순으로 준비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질의 시간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진행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먼저 보고드리게 되어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이번 화성 화재와 어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화성 공장 화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대통령님과 총리님 그리고 중대본부장인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상황을 관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항을 안내·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과 더불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대책은 사회재난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홍종완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 개요입니다.

6월 24일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2층 완제품 보관창고에서 검수·포장 작업 중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속히 화재 원인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현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3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명은 발인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스물두 분은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총 8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응 현황입니다.

화재 신고 접수 이후 소방대응 1·2단계를 발령하였고 화재는 사고 다음 날인 6월 25일 08시 48분에 완진되었습니다. 화재진압 및 수색구조에 소방·경찰력을 포함한 인력 325명,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121대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다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대통령, 국무총리, 중대본부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 수습사항을 관리하였으며 중대본회의를 어

제까지 8회 개최하여 피해 수습 및 유가족 지원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와 조기수습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유가족 대기공간 운영과 구호물품 제공 등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화성시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지 관련 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동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청을 비롯한 추모분향소 6개소를 자체체와 협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망자별로 장례지원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배치하여 장례부터 발인까지 절차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빈틈없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습·복구 현황입니다.

기관별·분야별 산재되어 있는 재난 피해자 지원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행안부·고용부·지자체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피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 입국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 가족 대상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25일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금 신청 현황으로는 7월 1일 기준 부상자 3명이 신청하였으며 지급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유가족 증빙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사망자 23명과 부상자 5명에 대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성금을 지속하고 있으며 7월 1일 기준 3억 8708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발방지 대책 TF 구성·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4일 대통령 현장 방문 시 경기 화성 공장 화재사고를 통해 나타난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F 운영 방안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고용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과기부·소방청 등 다수 관계부처를 참여토록 하였으며 이번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토대로 유사 공장과 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 방안, 소방시설 기준 등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중심으로 TF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석곤 소방청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허석곤 청장은 지난 6월 30일 소방청장에 임명되고 위원회에 첫 출석이십니다. 임명을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장 허석곤 인사드립니다.

제6대 소방청장 허석곤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의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소방청도 범정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신속하게 제도와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소방청장과 6만 7000여 소방공무원은 항상 신뢰받는 소방,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불변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든든한 후원자임을 굳게 믿고 소방정책과 당면 현안은 소상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입법사항은 소통하며 도움을 요청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팔 119대응국장이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 소방 대응활동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팔 119대응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 119대응국장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 이영팔입니다.

보고는 사고 개요, 주요 활동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는 6월 24일 10시 31분에 119 신고가 최초 접수되어 25일 오전 8시 48분에 화재를 진압 완료하였습니다. 발화 원인은 리튬 배터리가 폭열·폭발한 것으로 자세한 원인은 소방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원인 규명 중에 있습니다.

피해 현황은 사망 23명, 중상 2명, 경상 6명 등 총 31명의 인명피해와 8억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사유로는 작업자들이 초기 화재 진화를 시도하여 대피가 늦어진 점과 배터리 연쇄 폭발로 42초 만에 급격한 연소 확산과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점, 화재가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하여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10시 31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연소 확대 저지와 총력 대응을 위해 인근 소방서 소방력을 동원하

여 사망자 1구 수습과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를 저지하였습니다. 13시 19분 2층에서 다수 사망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전진단과 유독가스 측정 실시 후 구조대를 투입하여 18시 08분 사망자 21구를 수습하였습니다. 또한 25일에는 구조견과 구조대원을 투입하여 정밀 인명검색을 실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수습하였습니다.

소방청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10시 42분 초기 최고 수위의 대응 원칙에 따라 가용 소방력 최대 투입으로 연소 확대 방지와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최우선 실시 등을 지시하였으며 중앙119구조본부 고성능 화학차, 특수장비 출동,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소방청장 현장 출동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213개사 전지 관련 공장에 대해 고용부·산업부 등 관련 기관과 협동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화재 대응기술과 매뉴얼 보완,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교육과 전지 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과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남화영 소방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지금 여러 자료로 보면 소방청에서는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알고 계셨어요?

○소방청장 허석곤 사전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소방활동 자료조사서 한번 띠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기 있는데요. 저기 보면 연소 확대 요인도 나와 있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 이번에 불이 난 곳이 3동 맞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지역에서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주 출입구 이용을 해서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대로 지금 화재가 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활동 시 소방관들이 활동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박정현 위원** 이렇게 조사를 충분히 해 놓고도 이 조사에 근거해서 똑같은 화재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재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 소방청에서 제대로 대응활동을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적사항도 지금 있는데 이행 점검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은 관계인에게 지도를 했는데요. 그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사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화재 발생 19일 전인 6월 5일 날도 남양119안전센터가 현장에 가서 화재예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컨설팅을 하면서 다양하게, 현장에 가서 보는 거니까 다양하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화재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위험한 사항들이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박정현 위원**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불법적인, 이를 테면 가벽인가요? 철거된 사실도 알았을 거고 현장에 가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당초에 이 건물이 2018년에 아마……

○**박정현 위원**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예견한 사고였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가벽을 철거하고 이런 것은 불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청장 허석곤** ……

○**박정현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물이 당초에 소방법령에 적합하게 건축이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드러났는데요. 지금 소방청장께서 청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잘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소방청장으로 내정이 되셨고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향후에는 위험성이 높은 공장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화재안전조사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먼저 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 및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더 통감하게 됩니다. 생명, 그 무엇보다 소중한데 생명에 직결되는 화재 준비 그렇게 반드시 실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형식적인 소방 점검이나 또는 현장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대응 매뉴얼은 준비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소방청장님께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각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 대응 매뉴얼과 적극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소방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면 화재 발생 후 29초 만에 소화기 진화를 시도했고 그 후에 42초 만에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농연이 확산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소화기들은 있었지만 금속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는 공장이었는데 이 아리셀 공장 지난 4월 15일에는 우리 소방관서에 화재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통보를, 자체 점검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이런 시설들이 소방 자체 점검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각 상황별로 화재 진압에 필요한 것이 맞는지 또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점검은 부족하고 너무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또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준비되고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화재사고 이후에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해서 예방 점검을 갖다가 7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험성이 높은 대상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재안전조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비단 배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소방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각 관리자들의 자체적인 소방 점검 통보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 서류 작업들이고요. 서류가 수십 쪽이지만 내용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장별로…… 비단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대로 맞는, 지금 아리셀 공장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화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실질적인 점검을 하고, 형식적인 서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서류만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인 준비가 안 따라온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화재를 보면서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자동차 이쪽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이런 화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화 기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텐데요 특별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현재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소화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화돼 있는 것이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에 의해서 주변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진압하는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요. 우리 소방에서도 거기에 따라 SOP를 그동안 쭉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OP에 따라서 화재 진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화재나 금속화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관련된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다들 물로 소화하기 바쁘고 그게 화재를 더 키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아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배터리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화재 개연성은 커져 가는데 마땅한 소화 기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침도 없다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위원입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양부남 위원** 남양119센터에서 지난 3월 28일 날 아리셀 공장에 대해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 조사서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화재예방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라 지도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령에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면 강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으면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화재는 금속화재잖아요. 일반화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속화재에 대비해서 질소나 질석, 방염포 이것을 준비했는지, 실제로 리튬전지가 발화했을 때 이것을 소화하는 훈련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하지 않았거든요, 화재 예방과 교육이 자체적으로 셀프 점검·실시되기 때문에. 그러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면 실제로 이러한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리튬전지가 발화됐을 때 소화하는 훈련을 했는지를 체크했을 것이고, 그러면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하도록 조치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재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화재가 나고 나서야 리튬전지를 포함한 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나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 화재안전조사는 통상적으로 소방력, 여러 가지 대상 수, 취약요소 등을 고려해서 전체 대상물의 한 5% 정도를 선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리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정 기준에 빠져서……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을 보고 말씀하는데 관련 법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앞으로는 리튬 배터리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꼭 하도록 하시고 다음, 설계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처음 인허가 당시의 이 공장의 설계도면입니다.

청장님, 인허가 당시의 인허가 설계도면인데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인가하기 전에 소방관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동의 여부를. 그때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소방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의견서를 써서 동의 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당시의 도면을 보면 동선이 확보가 안 됐어요. 복도로 바로 이어지질 않지요, 작업장에서. 그런데 이때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 인허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궁금한데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다음에 사고 당시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 당시 평면도를 보면 인허가 당시의 설계도면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지요, 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구획이 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양부남 위원** 구획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음 인가 당시에는 출하 대기 장소가 있었습니다. 없어졌지요? 출하 대기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보면 리튬전지는 작업장의 별도의 공간에 분리 보관하도록 돼 있고 작업장에는 가장 소량의 리튬전지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출하 대기 장소, 리튬 보관 장소를 없앴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유독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못 하도록 했고 여기서도 역시 피난 동선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더라면 이런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조치, 이런 공간을 없앤 것에 대해서 복원해라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의 기준에 대해서 대상 업체의 규모만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관련 법에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꼭 해 주시고.

이 도면에 보면, 지금 작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저기 발화 장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가 당시 도면처럼 출하 대기 장소로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없는 구조예요.

화재안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창구 출신 김종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화성 공장 화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애써 주셨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늘 마음속에 꼭 되새겨야 하는 격언 중의 하나가 낭떠러지 아래의 구급차가 되기보다는 낭떠러지 위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 아무리 수습을 잘하더라도 선제적인 예방대책 마련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허석곤 소방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라는 명성에 무색하게 리튬 배터리 화재의 안전 관리와 관련 법안 등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고라고 여겨집니다.

청장님,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10인 이상의 금속 제조업 사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통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법에서 자료를 찾았는데요 전국에 한 317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3000여 개의 사업체가 있고 2018년과 비교해서 대폭 증가한 실정입니다.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만큼 화재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당국의 대응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화재 유형별로 특수한 성질에 따라 맞춤형 소화장비로 진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현재 소방시설법상 화재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주방화재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유형별로 소화기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행 소방시설법상 금속화재는 소화기 기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용 소화기가 없는데 리튬 배터리 등 금속화재에 기존 분말·질식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합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는 분말소화기로 써는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진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을 이용해서 열 폭주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다면 금속화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음에도 지난 5년간 소방청에서 리튬 배터리 등 금속화재 진화를 위한 소화기 연구용역조차 진행한 그런 사례가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청이 금속화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장님, 현재 화재 예방법상 소방 당국은 연면적 3만m² 이상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난 화성 공장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중점 관리 대상에 제외되어서 자체적인 소방 점검을 실시한 후 소방 당국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 일반화재보다 인명·재산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도 중점 관리 대상을 화재의 유형별로 그 특수한 성질을 감안하지 않고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지정하다 보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은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동의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서 소방청도 시장의 빠른 기술 진보에 맞추어 소방시설 관리 기준과 그에 맞는 법과 제도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다시는 국민들이 대형화재 참사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장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화성 공장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이번 화재는 정부의 무능과 사업자의 무사안일이 만들어 낸 재난 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재난은…… 열심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참사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 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소화기 사용이 오히려 화재와 재난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

○위성곤 위원 모르십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노동자들이 사용한 소화기는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A·B·C등급의 소화기였습니다. 맞지요,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으로는 실제 금속화재는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PPT를 보시면 A급은 일반화재, B등급은 유류·가스화재, C급 화재는 전기화재, D급 화재는 금속화재로 분리되어지는데 실제 A·B·C등급의 소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다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셀 소방시설 설치 현황인데요. 보시면 분말소화기 서른여섯 대, 이산화탄소소화기 두 대, 할로겐화합물소화기 한 대 그래서 A·B·C 소화기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고, 참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2020년 감사원은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소방청에 관련되어진 조치사항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소방청장은 소화기 구 및 자동소화장치 등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를 추가하고 금속화재용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화재 유형에 금속화재가 추가되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금속……

○위성곤 위원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종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안 되었지요?

○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아직……

○ **위성곤 위원**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도대체?

두 번째, 형식승인 도입 방안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형식승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소방청장 허석곤** 예, 지금 올해 7, 8월경이 되면 마그네슘 D급 소화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고는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또한 무사안일하신 거지요. 사고 위험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전혀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화재 참사 전에 D급 금속화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분들이 금속화재 특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 습득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인 거지요.

이상민 장관님, 참사가 맞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아주 끔찍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춘생 위원** 이상민 장관님, 저는 장관님은 이태원 참사 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견제하시니 그 책임을 다시 묻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 배터리 공장 사고뿐만 아니고요,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참사는 공사 책임자만 처벌받고 재난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도 23명이 기소되어 정보경찰 3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행안부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헌법 제34조제6항 알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조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 **정춘생 위원**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또 재난안전법 제6조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 **정춘생 위원** 이런 법적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 책임을지고 사퇴해야 마땅한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끗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윗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누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PPT 한번 봐 주세요.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공개 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즉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을 물려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던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근조도 새겨지지 않은 리본을 착용했는지, 위폐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차렸는지, 왜 희생자의 위폐와 영정이 모셔진 시민분향소에서는 끝끝내 참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다 이 음모론에 근거한 행동들이었습니다.

PPT 넘겨 주십시오.

‘신의한수’라는 극우 유튜브에서는 ‘이태원 참사는 촛불 참여자가 몰려서 생긴 일이다’, ‘이봉규TV’에서는 ‘각시탈을 쓴 사람이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려 댔다’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받아 국민의힘 한 의원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특정 정당의 관계자’라는 질의까지 했습니다.

장관님,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당시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 사고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좁은 골목에 순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서 거기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 주된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정춘생 위원 대통령이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생각을 믿으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은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기대서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춘생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춘생 위원 저도 들여다봤는데요 대기 시간이 엄청 많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만을 넘겼습니다. 곧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100만이 넘으면 정부에서도 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저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관님, 후임자 오시기 전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저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때 이후로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해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제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춘생 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의해서 특조위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기한 넘겼습니다. 기한 넘겼는데 여당에 적극적으로 주문하셔서 특조위원들을 빨리 구성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해양수도 부산, 해양 중심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지난주 화성 화재 사건에 이어서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고가 안타깝지만 멀리 타지까지 와 사고를 당하신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어젯밤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일상을 살다가 퇴근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사건을 보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일 뿐입니다.

정부가 사고 수습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건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이상민 장관은 탄핵심판이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거기에 주문을 보면 ‘결국 피청구인의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 34조 6항, 재난관리법 4조 1항, 제6조……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헌법 제7조 1항, 제10조,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책임 이야기하시면서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김진표 의장님께서도—사실 전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님 제가 총리실에 근무

할 때 행정조정실장으로 모셨던 아주 존경하는 선배 공무원이시기도 하십니다—‘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해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각종의 화학물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선점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에 대한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약간씩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이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게 산업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 리튬 배터리만 하더라도 일차전지, 이차전지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일차전지를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지금 각종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제조뿐만 아니라 보관, 운송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위험 요소들이 아주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하나 화재 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폭주를 막기 위해서 물 담아서, 그냥 담가 가지고서 불을 끈다든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운반용 차량,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서 움직였을 경우의 화재라든지, 더 극단적으로는 선박에서 운송 과정에서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배터리들이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 또 폐배터리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물류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상당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는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님께서 전 정부 차원에서 이 안전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서, 지금 전기차나……

소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기차나 리튬 화재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저희들 현재 관련해서 세 가지 SOP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 대응 매뉴얼 그리고 금속화재 대응 절차 매뉴얼, 에너지저장장치(ESS) 대응 매뉴얼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실질적인, 효과적인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 반복 교육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습 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조승환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질의에 앞서, 화성 화재로 많은 노동자분들이 희생당하셨는데요 희생자분께 명복을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들께는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번에도 위험한 현장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셨던 소방대원께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번 화성의 아리셀 사고는 리튬 배터리의 폭열과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인데요. 언론에 나온 영상을 보면 적재된 원통형 완제품 배터리에서 폭열·폭발하면서 급격히 연소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당시의 CCTV를 보면 빨간 소화기를 쓰는 근로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얘기는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금속화재에 대한 관련된 리튬 배터리의 폭열과 폭발이 났을 때 빨간 소화기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은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지금 리튬 배터리는 금속화재와는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금속화재는 금수성 물질로 해 가지고 물 접촉이 안 되는 이런 형태고요.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리튬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상의 위험물 물질 관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 제17조에 리튬은 주 출입구 입구 이외에 비상 출입구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구분하고요. 금번 사고처럼 완제품도……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제품입니다. 완제품도 큰 사고 발생을 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나온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해서 유해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리튬에서 나오는 일차전지 구성품인 염화티오닐만, 그러니까 염화티오닐은 굉장히 유독성 가스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만 화학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도 다르고 지금 노동부도 다르고 리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우리 소방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리튬 50kg 이상일 때는 소방법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관리와 보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서 소량의 리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험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회사에 따르면, 이게 적재 시 너무 높게 적재를 하면 제일 아래 쪽에 놓인 전지 상자는 변형되거나 전해액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출될 수 있다, 적재 시 충격이나 적재에 따른 변형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이번에 배터리 공장의 위험성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TF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리튬 등의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 방안 있는지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이광희 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법안이 없어요. 이와 관련된 법이 별로 없어요. 리튬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발화 온도가 180°C, 연소 온도 2000°C에 이에 대한 소방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어떤 준비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지난 2022년에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 차전지이긴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이었고요. 지난 7월 1일 지하철 3호선 도곡역과 대치역 사이에서 선로 작업하는 특수차량에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9호선 흑석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로 무정차 통과했을 때도 리튬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이 같은 리튬 배터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길거리에는 지금 60만 대의 리튬전지를 달고 있는 차량이 왔다 갔다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뭔가 준비가 좀 돼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현장에 빨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B·C급, 부족한 거는 다시 좀……

1분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질문을 그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이번 사태를 일으킨 리튬과 관련된 이차전지 시설뿐 아니라 일차전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국가 차원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법적 필요성이 분명히 요구되는 시기까지 왔다,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도 해 주시고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5분 내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먼저 화성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국민들께 이해를 돋고자 우리 김진표 의장님의 페이스북에 실린 내용이 이렇게 단락단락 전달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체 행간을 한번 읽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의사 정원 확대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 두 분이 나누신 대화의 그 상대 당사자인 김진표 의장님께서 사후에 이런 내용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을 전달합니다.

특히 오늘 소방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이달희 위원 배터리는 일차 배터리와 이차전지가 있지요, 일차전지, 이차전지?**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일차전지, 이차전지 분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일차전지를 들어 보이며)

일차전지는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쓰는 건전지 같은 게 일차전지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차전지는 휴대폰이나 전기자동차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가 이차전지입니다.

우리 요즘 신소재 산업이 정말 우리 전 세계에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신소재 산업을 유통하고 키우기 위해서 아주 산자부·과기부에서 환경부와 함께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산업 현장에서 신소재를 포함한 산업 증진에만 가열차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하고 첨단산업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께서 직접 과기부·환경부·산자부 다 합쳐서 이 신소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는 물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전자는 다른 회사에서도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화성 공장에서 이 전자가 8개, 8개, 64개의 전자가 뭉쳐져서 악적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만 5000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자는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아리셀에서 하는 것도 다 군대에 납품하는 군수용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 납품했을 때 이번에 폭발난 것처럼 그 폭발만 있었나? 그게 아닙니다. 사전에 제가 받은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에 보면 201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20건이 넘는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물론 이제 생명까지 잃은, 이렇게 다 악적돼서 한꺼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작은 사고였지만 앞으로 TF를 구성하셔서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은 행안부가 직접 챙겨 가면서 산업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달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국회의원 이상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 정무직 아닙니까? 국민들의 65%가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협의하고 합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야당하고 국민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합의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노력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상식 위원 20%의 지지율밖에 없는 대통령이 야당하고 국민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적으로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회 어떻습니까?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왜 국회의 권위는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의 권위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오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식 위원 장관님, 우리 국회에서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된 것은 우리 국회 내부의 사정일 뿐이지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국회의 의사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유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래서……

○이상식 위원 이거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향된 생각이지요.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것이다 하는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상민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 원인,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도……

○이상식 위원 사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사고……

○이상식 위원 아까 사고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정부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수습 과정이나 예방 과정에서 다소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여기 보면 국민의 73%가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현장에 배치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대비나 경찰의 무슨 외부 정보 활동 그다음에 경력 배치, 사후 수습 이런 거 중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국민의 73%가.....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조은희 위원** 지금 이태원 참사 발언..... 이태원 참사 질의입니까, 화성 발언입니까?

○**이상식 위원** 지금 참사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는 데 끼지 마세요.

○**이상식 위원** 제가 무슨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은희 위원** 지금 이태원 참사 질의입니까, 화성 질의입니까?

○**이상식 위원** 아니,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질의 끝나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든지 아니면 개인 발언 시간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조금만.....

장관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태원 추모 ‘기억의 공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유족들이 한결같이 분통을 터트리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상민 장관, 이분이 이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뭐 기간적으로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어떤 생각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간이 제일 긴.....

○**이상식 위원** 아.....

그러면 뭐 충분히 하셨고, 지금 뭐.....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도 또 제외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장관님, 이만하면 이태원 참사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장관님은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의 질의로 갈음하시려 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장관님이면 저는 부끄럽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장관님, 억울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탄핵소추도 기각되고 해 가지고, 기각

됐는데 본인보고 물러나라 한다,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것은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조문도 안 하고 만나 주지도 않고 총리는 국민들 복장 터지는 소리 하고 있고 물러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장관님은 지금 최장수 장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정작 억울한 것은 유족들하고 국민 아닙니까? 장관님,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쎄요, 뭐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먼저 의사진행발언 드리기 전에요.

상대 위원이 의사진행 정상적으로 자기 순서를 통해서 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질의 시간에 상대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의사진행 순서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간단히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지적대로 상대 위원의 발언 중에 제가 발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평소에 존경했는데 오늘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잠시 존경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정말 화성 공장 화재 관련해서 화재의 원인과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화재는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시간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탄핵을 당했지만 현재에서 그게 탄핵이 기각됐다고 왜 이 자리, 그렇다고 정무적인 장관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마땅하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했습니다. 그런 질의가 지금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건 희생자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느냐, 참 참담한 생각이 들고……

○**이해식 위원** 위원 질의는 문제 삼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이것이 과연 이런 상임위를 열 수 있는 건가? 그래서요……

○**이해식 위원** 위원 질의를 문제 삼지 말라고요. 무슨 권리로 문제를 삼아요?

○**조은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해식 위원**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신정훈** 자,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안질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현안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재난 참사의 책임자잖아요, 행안부장관이. 왜 그런 질의를 못 합니까? 왜 질의를 문제 삼아요?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저도 지금 국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30초만 반론해 주시고 이 의사진행은…… 아니, 30초만…… 왜냐?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다 섭렵하지는 못했지만 이상식 위원님의 그 발언은 충분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진행발언을, 진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할 내용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발언 시간도 드리겠고 앞으로 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도 드리겠지만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시간은 반드시 존중해 주는 그런 행정안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추가발언하겠습니까?

○**이상식 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상식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런 말을 못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조은희 위원**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상식 위원** 예.

재난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발생한 화성 사고뿐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사고에 대해서 관리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인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가장 큰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책임지는 자세를 묻는 것인데 그게 왜 이번 질의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서로의 의사진행을 존중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저도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은 이태원 참사 초기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언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긍정을 하셨어요.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인데 다만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관께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접 밝히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전 의장님과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셨는지도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사가 난 직후에……

○**이해식 위원** 회고록에 내용이 나왔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실에서는 그 내용을 부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어떤 답변을 기대하는 제가 잘못이지요.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안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거기에 불법적으로 파견됐던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 리튬전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더라면, 그냥 일반소화기를 뿐리면 더 화재가 번진다고 하는 사실을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불꽃이 난 반대 방향으로 가 가지고 출입구 찾다가 다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출입구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재난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메이셀이라는 회사는 혹시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 메이셀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날 50명 정도의 인력이 아리셀 회사에 일용직으로 공급이 됐어요. 하루 일하는 일용직으로 공급이 됐는데 그 인력을 공급한 회사 이름이 메이셀입니다. 그런데 그 메이셀은 반월·시화 공단에 있는 거의 300여 개에 달하는 작은작은 그런 인력 공급 업체들, 불법파견, 용역업체들로부터 인력을 또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단계 구조를 다단계 인력 하도급 구조라고 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회사는 그 편익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17명, 18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위험의 이주화라고 부릅니다. 회사로서는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해야 된다, 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장관께서는 재난안전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사회재난, 자연재난, 지금 사회재난실장 나와 있지만 법적으로 사회재난의 제일 처음이 화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화재 사고로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돌아가셨으면 이런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

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이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소한 그러한 사업장과 공장에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만일에 그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더 엄격한 처벌을 함으로써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 구성되는 TF에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러한 점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국정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갑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 이성권 위원님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고에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현장에서 사고 진압을 위해서 고생하신 소방대원 또 경찰 등 소속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의사진행성 발언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장이든 또 본회의장이든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발언이든지 간에 국민들이 그 권한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 공장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됐고 종로에서 어젯밤 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현안으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대통령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가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정쟁적 성격으로 볼 소지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자제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좀 각자가 같이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문명이 발달, 신기술과 또 신산업이 등장하면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또 위험을 내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PPT에서 보는 것처럼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일차전지나 또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급속도로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위험은 내재화되어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폭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은 소방

당국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아까 위성곤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4년 전에 감사원에서 금속화재용 소화기 승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미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소방 당국에서 직접 금속화재용 소화기 성능 기준을 담은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예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짧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와 같이 행정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 후속 절차들에 있어서 비용분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절충, 이런 규제 심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마그네슘 D급 소화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은 나트륨, 칼륨 이런 데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형식승인 기준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다른 나라의 국제적인 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D급 화재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인도 정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인근의 일본도 마찬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쨌든 범정부 TF가 마련된 만큼 금속화재용 소화기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자료 좀 넘겨 주시지요.

이번에 화성 공장의 사망 원인, 직접적 사인은 뭐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알기로는 가연성 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질식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의 자료를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최근 2020년부터 24년까지 사망 원인들을 보면 화재사고 사망 원인의 거의 58.8%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PPT 자료가 왜 안 뜨지요?

아, 저쪽에서 뜨고 있네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질식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연설비나 방독면 같은 기초적인 장구류가 필요한데 이번에 아리셀의 경우는 그게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시설법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제연설비는 보면 주로 다중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신기술에 의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앗아 가기에 폭발력이 큰 곳도 새로 분류를 해서 제연설비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1분만 의사진행발언해도 됩니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시고요, 우선 본질문하시지요.

○용혜인 위원 예.

소방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방이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 화재 진압에서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만 참사 대응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복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의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법 개조 정황이 제기가 되면서요. 동의하시나요, 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용혜인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청장님.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인데요,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수사 결과 이전에 소방에서 판단하시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못 하시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령화시켜 놨던 소방 당국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예방조치들에서 이 불법 개조 정황에 대한 사실들이 전혀 확인되거나 또 시정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성소방서로 보고됐던 작년과 올해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 문서 혹시 보셨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활동 조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혜인 위원 예,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여기 보시면 다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이 없었습니까, 아리셀애?

○소방청장 허석곤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는..... 제가 경기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참사 발생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소방청장 허석곤 자체점검 결과는.....

○용혜인 위원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화재로 드러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인데요. 2022년 3월에 작성된 자료조사서랑 2024년 3월 28일에 작성된 자료조사서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맞춤법 틀린 것까지

똑같아요.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 우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당 자료 제대로 조사하는 경우가 없는 게, 자료 조사 작성하는 경우가 없는 게 대부분인 것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근무 때 바쁘니까 비번 때 다녀오라고 시키고 현장까지 안 가고 전화 한 통 해서 특이사항 있는지 물어보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2022년, 2024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난달에는 관할 119안전센터장이 직접 가서 화재안전 컨설팅까지 했어요.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3동 연소 시 대응방안, 제대로 컨설팅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경기도재난본부에서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데 대해서 관할 안전센터장이 분기별 1회 나가서……

○**용혜인 위원** 아니요, 그 컨설팅이 잘됐는지 확인하셨느냐고요, 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글쎄요, 관계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안 됐지요. 리튬 배터리 문 앞에 두지 마라, 적어도 소분해서 분리 적재 해라, 이런 컨설팅만 제대로 됐어도 3만 5000개 배터리가 전소하고 23명이 사망하는 이런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청장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소방의 예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참사 발생 이후에 청장님께서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지적해서 보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청장님의 답변이 다 ‘그것은 경기에서, 본부에서’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화재안전조사 제대로 했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 따르면 산업단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자원순환시설 합쳐서 23곳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아리셀은 이 세 가지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데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선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화재가 나면 상황실에서 뽑아 보는 자료들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자료들입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지휘전략 짜고 지령 내리고 현장 대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조사하고 점검하고 감독할 거면 이런 예방조치들을 정책화하고 법령화하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게?

○**소방청장 허석곤** 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백번 공감하고요. 당장에 신형 소화기 도입이나 다른 획기적인 정책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야 할 예방조치들부터, 그리고 이미 갖춰진 이런 시스템들이 관성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만큼 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이미 진행돼 오고 있는 시스템들이 관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들 관련 대책들 수립해서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너무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 **용혜인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혹시 경기소방본부장님 오늘 안 나와 계시지요, 김포에 화재 있어서?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나왔습니다.

○ **용혜인 위원** 나와 계세요?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예, 경기소방본부장입니다.

○ **용혜인 위원** 첫 발화 이후에 수분 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대피가 안 됐나, 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역시 확인해야 하고 소방당국에서도 분명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이유라면, 같은 핑계라면 다른 자료들도 다 제출 거부하셨어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제출하실 때까지 요구할 테니까 경보설비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들 반드시 오늘 중으로 검토하여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 **용혜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현일 위원** 영등포갑 채현일입니다.

장관님,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 **채현일 위원** 법조인이시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 **채현일 위원** 대한민국이 실정법주의입니까, 아니면 관습법주의입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실정법 우선이지요.

○ **채현일 위원** 주의지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 **채현일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상임위에 국회 출석을 안 하신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62조 2항에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런 조문 알고 있습니다.

○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장관이 아닌 법조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 **채현일 위원** 여야 합의라는 내용이 헌법 규정에 있나요? 법률 규정에 있나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인데 염연히 헌법이나 법규정에 ‘해야 한다’, 그러한 여야 합의 규정이 없음에도 했다는 것은 염연히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태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에 정부부처 장차관이 국회 상임위 불출석한 게 스물아홉 번입니다. 그중에 여야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한 게 스물두 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딱 세 번입니다. 어떤 이유였느냐면 질병 때문에, 국정현안 대응 때문에 그리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 합리적인 사유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했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스물아홉 번, 문재인 정부 때는 합리적 이유로 세 번, 열 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구체적인 횟수까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의 그런 시각이 그대로 표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임위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여러 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채현일 위원** 장관님,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금 2000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최장수 장관이십니다. 맹형규 장관이 2년 11개월 됐고요.

술한 재난과 참사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에서 23명의 화학공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각종 재난 참사에서 현재까지 책임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책임지고 물려난 사람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세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채현일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요.

자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해폐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당시에 총리, 장관 등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어김없이 사퇴하고 경질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는 어떤 재난과 참사가 발생해도 사의를 표명하거나 경질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만약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다면—가정입니다—오송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등 정부의 무책임으로 얼룩진 일련의 비극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도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2, 제3의 화성 화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재발할까 무척 두렵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 정부의 오만한 행태가 개전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대야 합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연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생각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제 소임을 다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예전에 사의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사의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장관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이런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임기가 보장된 직업공무원들이 할 얘기입니다. 정무직이고 국무위원이신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화재사건을 화면으로 봤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처음 발화가 됐을 때 불을 끄겠다고 일반소화기를 가서 뿌리면서…… 오히려 그 소화기를 뿌리지 않고 발화 시점을 본 첫 사람이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치고 조금만, 문만 확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관님께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 이런 건 곧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확실히 짚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냉각수, 다량의 물로만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화재가 처음 발화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리튬 화재 소화기는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고 적응력 있는 소화기가 현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면 다량의 물은 우리 소방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 현장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또 행안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소화기가 또 있습니다. 24년 1월에 소방청을 비롯한 지자체 재난 관련 정부기관에 우선 활용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청은 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취지가 뭐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소방청 기준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 저희는 재난안전제품 개발 촉진하고 그 산업체의 진흥을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

입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소화기를 검증을 하면서 1·2차 위원회 심사를 했는데 현장 심사도 했단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즉 발화하는 걸 보고 직접 시연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증을 해 주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국회 전기차 충전소, 대기업 또 지자체 등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제품은 일정 수준 효과가 인증된 제품이잖아요, 현장 검증을 하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또 소방청은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그런데 행안위 검증을 보면 현장 검증까지 실제 해 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소방청은 기준이 전연 다르다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 생각은 재난안전 인증제품 이번의 이것은 다소 냉각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법정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엄격한 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면 계속 기준 충족 안 하면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이제 관련된 R&D나 TF를 통해서 소규모 리튬전지 인증기준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이런 것들을……

○**한병도 위원** 잠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소방청에서도 문제를 인식 못 한 건 아닙니다. D급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서 2023년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요. 지금 국무조정실 등의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지금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청장님.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래서 이 절차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현재 패스트트랙 절차를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여기에 발맞춰서 화재 유형별로 소화기 시험의 세부 기준을 시급히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소화기 글로벌 스탠더드를 오히려 저희들이 이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리튬 배터리에 화재 발생하면 최소한 600m 가고 800m까지 위험하니까 그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피하라고 하고 800m 반경까지는 독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 끝났나요. 이번 화재 때 우리 소방대원들 대응하는 걸 보면 주변에서, 물론 이제 진압이 된 상태니까 그렇지만 초기 진압을 할 때는 마스크 같은 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 보시면 다 일반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들부터 그 주변에 관리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다 이렇게 작업도 일반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세심히 배려를 해서 방진마스크 착용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병도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화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우리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 공기호흡기입니다. 탱크 속에 공기를 압축해서 쓰는 공기를 쓰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체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소 저지가 되고 나서 그 단계에서는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주변의 가스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농도가 인체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를 쓰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물론 당연히 진압할 때는 그걸 안 쓰시겠지요. 그런데 이후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그걸 측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한병도 위원**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허석곤 소방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년 전에 감사원에서 금속화재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소방청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고 기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금속화재 D급 소화기의, 이것은 재료 물질에 따라서 소화기의 성능이나 약제 등 이런 기준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그 인증기준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올 7월 정도 되면 그것이 형식승인 기준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현재 나트륨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인증기준도 추가로 더 형식승인 기준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청장님,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 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그네슘 합금 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기술 기준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마그네슘 합금 칩이 이게 경량에 강도가 높아서 자동차 휠, 항공기, 카메라, 전자기기 등에 사용된다고 그러는데 리튬이,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일상에 쉽게 접하는 물질인데 이런 도입 기준에 상응하는 소화기가 리튬 배터리에도 적용이 잘 되는 겁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그네슘과 리튬은 화학물질이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리튬으로…… 리튬이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소화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이제 다시 개편하신다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리튬전지에 대한 금속화재 소화기 인증기준 개선을 위한 TF를 저희들이 지난 6월 28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을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금속성 물질을 포함한 위험물 소화약제 교육을 24주 동안 며칠 정도 받는지 제가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필요한 시간을 산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휘관 기본교육에도 금속성, 금수물질 화재에 대한 교육은 극히 적은 시수만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청장 허석곤** 전체적으로 특수위험물이라든지 특수화재에 대한 교육은 전문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두 번째는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유가족분들 중에 외국분들이 많으신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거기서 들었는데 이분들이 국내 체류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시거나 이런 대책들이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를 해서 각 분야별로, 심리 지원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다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숙박이라든지 그것은 인근 모텔 네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저는 이번 화재사고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책 차원에서, 두 번째가 실무 차원인데요.

소방청장님께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금속화재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있었고 또 소방청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였던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도 2020년에 이미 지적했는데 속도가 잘 안 났던 거지요. 안전에 대한 정책 속도가 대단히 늦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리튬 배터리, 미국에서는 리튬 배터리 관리 매뉴얼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시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 리튬 배터리 관리 매뉴얼 보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그것을 꼼꼼히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을……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본이라도 소방청에서 가지고 계세요?

옆에 계신 분들 답변하세요, 바로바로. 미국에서는 5년 전부터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그걸 업데이트까지 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방청에서 그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느냐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가지고 있어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NFPA 코드 855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이것을 근거로 해서 ESS……

○윤건영 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미국에서부터 가지고도 있고 2020년, 5년 전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왜 속도가 안 납니까? 정책 속도라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감사원 지적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두 번째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소방활동 자료보고서라든지 위험물 안전관리 컨설팅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지적입니다. 청장님, 맞지요?

제가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와 관련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조사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소방청장 허석곤 안전센터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윤건영 위원 평균적으로요.

○**소방청장 허석곤** 도시지역은 한 일이천 개 정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농촌지역은 그것보다 작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건영 위원** 어떻게요?

○**소방청장 허석곤** 좀 더 작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건영 위원** 자, 좋습니다. 119안전센터 한 곳에서 일이천 개를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점입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나 또는 전화로 확인해서 수정하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마다 저희가 매번 이 조사서가 잘못되었다, 왜 현장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119안전센터에 계신 분들에게 확인해 보면 나가서 그거 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맨날 국회에서 이런 걸 떠들면 뭐 합니까? 그리고 화재 났을 때 사후약방문처럼 이걸 조사서를 제대로 써야 돼, 써야 돼, 컨설팅을 해야 돼라고 해 본들 119안전센터에 계신 분들이 일이 많아서 허겁지겁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셀 현장에 나갔던 분들 여기에 명단에도 다 나와 있고 이 조사서가 불충분하지요. 그런데 불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행안부장관과 소방청장님 그리고 재난관리본부장님은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답을 내셔야 돼요. 일선 119 소방안전센터의 대원들에게 책임을 넘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형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문제는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개선됐어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책의 속도, 이것도 이 자리에 계신 장관과 청장의 뜻이에요. 정책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실무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 또한 장관과 청장의 문제예요. 일선 대원들 문제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이고요, 매번 반복해서 지적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방금 윤건영 위원님 질의 과정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없었는데 장관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청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TF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TF를 통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윤건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즉 정책의 속도를 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리튬 배터리 화재 문제는 한두 해 문제된 것이 아닌데, 저도 사실 그전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히 더 정책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요.

특히 그전에도 R&D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리튬 에너지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속도가 더뎠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화성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속도를 내고 특히 관련 TF를 통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실무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소방관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관련된 업체와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개선된 방안이 어떤……

○위원장 신정훈 현장의 실무적인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관님과 청장님과 같이 좀 더 상의해서, 그냥 구두선으로 끝날 게 아니고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모경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정무직공무원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개를 끄덕임)

○모경종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전체 행안부와 소방청 등등이 다 안 나오셨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행안부 전체 다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걸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지시하지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소방청장님은 지금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소방청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소방청 내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당시에 저는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모경종 위원 당연히 그런 지시가 없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소방청에서 오늘 김용수 대응총괄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현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오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모경종 위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도 못 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장마 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맞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분도 못 오셨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제가 불러 드린 이 세 분은 공교롭게도 상임위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의 힘에서 주최하는 특위에는 나가서 참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알겠습니다. 장마 대응도 중요하고 많은 이유로 안 나오신 것 알겠는데 참 공교롭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어떻게 지정하는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각 소방관서장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화재예방법상 소방 당국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을 심의해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3류 위험물로 분류된 금속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알고 계시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모경종 위원** 아리셀이라는 업체 자체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었고 자체 소방 점검만으로도 괜찮았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게 이뿐만이 아닌데, 인명 피해가 커던 배경 자체를 여러 가지 살펴보다 보니까 통로가 막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화물 엘리베이터, 대피 계단으로 향하는 동선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해당 건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건물이었다는데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입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소방청장님?

현장마다 화재 위험이나 이런 대처법 등이 다 다릅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특수건물 자체는 화재안전성능 위주로 설계하고 인허가도 이에 맞춰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규정되어어서 된다면 더 안전한 작업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위험한 원료를 다루는 그러한 작업장일수록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소방청장님 당연히 생각하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이 내부 규칙,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부 규칙들에 대해서도 수정하실 의사가 있으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TF를 운영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장관님,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정확한 기억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2014년에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라는 게 도입돼서 행안부가 그걸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기준 관련해서 회의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다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기준 관련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물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전체 통합·관리하고 있는 행안부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모경종 위원** 당연히 동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재발방지 대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TF 구성 방안에 국방부가 빠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왜 빠져 있는지는……

이번에 화재가 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터리가 군납 배터리예요. 군납 배터리가 국방부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군부대로 들어갔을 텐데 이에 대해서 왜 대응방안을 안 찾고 계시는 거지요? 또는 왜 이후의 계획을 안 잡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방은 다소의 특수성이 있어서 통상 TF 구성할 때는 참여를 안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화성에서 문제된 배터리가 전부 다 군납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TF하고 국방부가 유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보다 건설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전북의 고창 풍력발전 사건의 에너지저장장치 화재부터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초래한 데이터센터 화재까지 그간에 숱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의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식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발전소 화재 났다고 해서 발전소 저장장치 문제만 보고 데이터센터 불났더니 비슷한 곳들만 전수조사하는 그런 대책 말입니다.

어제도 지하철 3호선에서 리튬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났습니다.

장관님, 청장님, 이렇게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소방청 보고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범정부 TF에서 전지 관련 공장 213개사를 특별점검한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저는 공장 213개사를 특별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이번 업체, 아리셀에서 판매·보급된 전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 전량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를 전에도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불량품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 업체의 경우에 불량 여부를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수도나 가스 미터기, 의료기구, 조금 전에 모경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 군용 무전기 배터리로 판매·보급됐거든요. 그래서 전량 회수하든지 전수조사하든지 그런 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리튬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서 군용 제품으로 널리 쓰입니다.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소방청에 확인해 보니까 지난 3년간 군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 사건이 3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군부대의 관리 실태 문제도 국방부와 상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배터리 결함 여부가 원인이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청장님, 법정부 TF 운영계획에 따르면 과기부와 함께 리튬 화재에 대한 소화약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소화약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하신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개발 이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공백 기간의 대책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리튬 화재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이나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 사례 이런 건 없느냐.....

PPT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4년 전 소방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가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주제거든요. 이 중에 2021년 진행된 연구 내용이 소화약제 냉각성능 시험입니다. 이런 부분을 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ESS 화재 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시스템 개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개의 제품인 배터리에 적응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

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소방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다 나왔던 얘기라서 좀 겹칠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점검할 곳은 너무 많고 점검 할 인력은 너무 없어서 제가 오늘 하는 질의가 도저히, 위원들이 했던 질의가 결국은 일선에 가서, 일선에 계신 소방관님들이 야근하게 만들고 가서 도면 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소방활동 정보카드라는 게 지난번 판교 참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는 길에서 소방관들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고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맞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면)

4번 좀 볼까요?

소방활동 정보카드에는 분명히 위험물 등 설치 위치도도 표시되게 되어 있고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시설들은 도면에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로 대상물의 경우에는 위치도를 다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땠는지 5번 보시면요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저 건물이,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 주고 있어서…… 아마도 의도한 바는, 제가 이걸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어떤 건물이 몇 동이다를 구분할 수 있게만 도와준 것 같은데 사실은 평면도까지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규정에만 놔두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건물 사진만 찍어서 끝내고 있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이 화재정보 자료조사나 화재안전조사를 통해서 취득한 자료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구축하는 작업들이,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과거에 작성되었던 것이 다 등록이 안 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챙겨 보고 그런 부분들이 그 시스템에 잘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닌 게 아니라 5번에 보시면, 지금 저게 아리셀인데 예전 사명이었던 에스코넥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뭐 얼마나 구식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일 같으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청장님께서 또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인력으로 해결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돈은 그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빨리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서 R&D 예산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서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소방 R&D 예산이 2021년에 207억이었다가 231억으로 그다음에 증액됐고 그다음 연도에 261억까지 증액됐습니다. 이게 안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국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증액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덜컹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제가 행안위를 안 해서 대통령의 R&D 발언이 나온 다음인지 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222억으로 14.9% 줄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일하셨던 기획조정관님, 처음부터 R&D 예산 줄일 생각으로 하시고 15% 깎아서 예산 제출하셨습니까?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저희 처음에는 본예산보다는 좀 많게 제출했었는데 중간에서 R&D의 어떤 실제적인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거기에서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성숙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작년에 민주당이 노력해서 주요 사업비까지 해서, 소방청 예산이 10%가 증가됐고 주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2.6%가 증가했는데 R&D 예산만 14.9%가 깎여 나갔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이렇게 예산이 깎여 나가는 과정 보고받으시고 혹시 기재부랑 협의하면서 ‘안전 문제니까 R&D 예산 좀 지켜 달라’ 이런 말씀도 좀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그런 보고는 직접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3조(예산에 관한 사항)에 보면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청장이 15% R&D 예산을 깎는데 이걸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기재부랑 협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것은 제가 청장을 통해서 다시…… 청장님 모르실 테니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5%가 깎여 나간 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라서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을 깎는 과정에서 날아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게 실제로 어디서 깎였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PPT 좀 보여 주시고요.

이것만 잠깐 보면, 지금 보시면 ESS 같은 경우에는 34억 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8억이 날아가고 6억만 남았습니다. 무슨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ESS R&D 예산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의 예산 삭감률을 보면 좀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올해라

도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이나 소방청장님, 예산 삭감 과정하고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20년 도부터 시작을 했고 2단계 사업을 24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 가지고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배터리 공장 화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신유형 물질들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서 이 위험성을 기반으로 소화약제라든가 시스템 그리고 저희 대응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문 다 마쳤습니다.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아까……

○**위원장 신정훈** 어떤 얘기지요?

○**정춘생 위원** 아까 제 질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간단히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법적으로 유무죄 따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재난안전 관련된 주무장관으로서 법적·정치적·도의적·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어야 했다, 해임됐어야 했다 이런 책임을 물은 거고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위원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상임위원으로서 모든 주제를 갖고 질의할 수 있다고 보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새롭게 제기되어 있는 음모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2018년, 2019년에 급증하고 그 당시에 보면, 기억으로 보면 관련 대책들을 정부들이 많이, 대책 방안도 마련하고 발표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 주요 현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정부 대책을, 마련했던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회의 일정이나 향후 의사진행 일정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광희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그리고 배준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또 조은희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련 자료도 충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소방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준비해 주신 국회 공무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회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신문근
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차관보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정책기획관 정창성
조직국장 김정기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소방정책관 황태연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배덕곤
119대응국장 이영팔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기획재정담당관 고영국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 김홍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